

베트남 한인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다

채수홍 지음, 『베트남: 한인의 베트남 정착과 초국적 삶의 정치』(놀민, 2021)를 읽고

이한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및 대학원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 조교수

I. 한국-베트남 수교 이후 30년

2022년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간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진전된 분야는 경제 분야일 것이다. 지난 30년간 양국의 교역은 150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의 직접투자액 누계 순위에서 한국이 가장 앞선다. 투자 프로젝트 수는 2022년 중반에 9천 개를 넘어섰다. 문화적으로도 한류가 베트남에 거세게 불어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제 베트남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베트남인들에게 익숙해졌다. 이제 상대국에 거주하는 인구는 공식적으로 각기 17만 명을 상회하는 정도이나 20만 명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주하는 베트남인 여성의 수도 많아져,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 순위에서 상위권에 있다. 한국에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이 만든 다문화 가정은 6만 세대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양국 출신의 부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 베트남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로써 베트남에는 한국인 공동체, 한국에는 베트남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2020~21년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부문에서 양국 관계가 좀 위축되긴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간 양국의 협력관계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것이다.

양국 수교 30주년에 즈음하여 그간의 양국 협력관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컨대 곽성일 및 5명의 연구자들은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부문에서 협력관계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곽성일 외, 2021). 이는 세 부문에 대한 거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교역과 투자 등 양국 간 경제 교류는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협력관계가 거시적 지표로만 제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의 국민들이 이주해 상대국에 거주하는 과정에 대한 면밀한 연구도 필수적이다.

II. 사람의 흐름과 베트남 한인 사회의 형성

이에 베트남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인류학자 채수홍 교수에 의해 최근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한인의 베트남 정착과 초국적 삶의 정치”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채 교수는 본래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기업 내 노동정치를 주로 연구해 온 학자다.¹ 그는 특히 베트남 남부에 있는 한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저자는 한인 사회 연구를 “주전공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것이라고 했지만, 그가 수행해온 한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연구의 기반이 있었기에 한인 사회 연구를 비교적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한인 사회 연구가 주된 연구 분야에서 잠시 벗어난 것이라고 하기보다 연구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해도 좋겠다.

저자는 베트남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삶을 깊게(thick) 읽어 그 복합적이고 다양한 면모를 서술(description)하였다(Geertz, 1973). 그는 베트남 거주 한인들을 삶의 형태로 보아 ‘정주자(settler)’가 아닌 일시적 ‘체류자(sojourner)’로 규정한다. 베트남 내 한국인들은 “돈을 벌면 언제든지 베트남을 뜰 수 있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품은 채 살고 있는 것이다”(채수홍, 2021: 6). 왜 베트남의 한인 사회에는 정주자가 많지 않을까? 저자는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

¹ 그의 연구 편력에 대한 개관은 채수홍(2014; 2020)을 참고하십시오.

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대다수 거주자가 경제적 동기로 현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외에 다른 요인은 없을까? 베트남 당국이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면 베트남 내 정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이 많아질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주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적 위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하다.

저자는 베트남 내 한인 사회가 동질적 집단이 아님을 역설한다. 한인 사회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베트남에서 접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낳고 베트남에 대한 인식 상 차이를 낳는다. 저자는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상생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 한인 사회의 연구로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두 나라 사람들의 관계에서 한국인의 베트남인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편견과 차별을 드러냄으로써 양자가 공존하는 데 극복해야 할 점도 지적한다.

이 저서는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한인들이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역사적 과정, 둘째, 베트남 내 한인 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 과정과 특징, 셋째, 지역별로 상이한 정체성을 만드는 한인 사회의 정치과정, 넷째, 한국과 베트남인의 관계 맺기의 방식 및 한국과 베트남인 간의 갈등과 협력 양상 등이다.

이 책의 저자인 채 교수는 베트남 한인 연구자로서 독보적이다. 그는 일찍이 2005년에 호찌민시 한인 사회를 연구한 논문을 최초로 출판하였다. 그전까지 베트남 내 한국인을 언급한 글이 몇 편 있었으나, 본격적 학술연구라고 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최상수(1966)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에 “월남에 있는 한국 교포의 실태”라는 다섯 쪽짜리 장을 포함하여, 1960년대 중반 중단된 상황에서 남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의 실태를 개괄적으로 기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내 한국인의 상주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며 일본군에 속했던 한국인 중 일부가 베트남에 잔류하면서 시작되었다. 김기태(2002: 412-417) 교수에 따르면, 1945년 일본이 패망할 당시 한국인이 하노이에 약 100명, 사이공(현 호찌민시)에 약 2,000명 있었다고 한다. 한편 최상수(1966: 359) 교수에 따르면, 1965년

경 남베트남에 상주하고 있던 한국인 교포는 164명이었다.² 남베트남 거주 한국인이 1945년 2,000명에서 1965년경 200명 이하로 감소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는 없다. 1945년에 사이공에 한국인이 2,000명 있었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근거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전의 연구들은 베트남 내 거주하는 한인이 몇 명이며 어떤 직업에 주로 종사하는가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채 교수의 연구가 베트남 한인 연구 부문에서 최초의 본격적 학술연구라고 해야겠다. 더불어 그는 인류학자이기에 베트남 내 한인 사회의 기원을 찾는 데 주된 관심을 갖기보다 현존하는 한인 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채 교수는 방법론적으로 문화와 권력 간의 관계를 다룬다. 그는 베트남의 한인 사회가 특정한 정치경제적 조건 속에서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실천하며 어떻게 내부적, 외부적 권력관계를 표출하는지 살펴보고 있다(채수홍, 2021: 31). 이 연구방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이 2005년에 발표한 호찌민시 한인 사회에 대한 연구다. 이 연구는 호찌민시 한인 사회의 구성과정을 설명하고 한인 사회가 상이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내부적인 갈등의 소지를 품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저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의 증가는 베트남의 개혁 개방정책과 맞물려 있다. 베트남 북부 지도자들은 1975년 통일된 후 남부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 하지만 부분적 성공만을 거두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에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게 된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초반에 부분적 경제개혁정책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의 성과를 일부 거두었다. 그러나 베트남이 1980년대 중반에 다시 경제적 침체를 맞아, 공산당과 정부는 1986년 12월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전면적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선포하게 된다. 이 ‘도이머이’ 정책은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의 대외경제 관계는 1990년대에 들어

² 베트남이 통일되기 이전 특히 베트남전쟁 시기에 남부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통일 이후에 재이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현존하는 한인 사회를 이루었는데, 채 교수에 따르면 이들이 ‘원로’ 그룹에 속한다.

서, 특히 미국 및 국제금융기구가 베트남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한 1994년 이후에 급속히 확대된다. 이후 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해 간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블루오션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이주하거나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주재원으로 파견되면서 현존의 베트남 내 한인 사회를 구성한다.

저자는 한국과 베트남이 1992년 12월 수교하기 이전에 베트남 내 거주하는 한국인 수를 약 50명 정도로 파악하였다. 이 수가 1996년 말에 호찌민시 인근에 5,000여 명, 하노이 인근에 5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채수홍, 2021: 94-95). 저자는 1997년 후반 이래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적 침체기, 즉 'IMF 사태' 때에도 베트남 내 한국인 거주자가 줄지 않았다는 것도 밝혔다.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소규모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수는 2000년대 초에 약 1만 또는 1만 5,000명, 2010년대 초에 약 1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 20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저자는 최근에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이 결혼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약 1만여 가정이 있다고 추산한다(채수홍, 2021: 95-97).

III. 베트남 한인 사회의 구성

이 책의 저자가 한인 사회 구성에 있어 호찌민시와 하노이를 비교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호찌민시는 베트남이 1975년 통일되기 이전에 사이공이었다. 한국은 남베트남과 국교를 맺고 있었고 북베트남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베트남전쟁에서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한국이 남베트남에 파병한 목적이 공식적으로는 이러했는데, 이에 대하여는 여러 주장이 논쟁적으로 공존한다. 채 교수에 따르면, 이 베트남 파병이 남부, 특히 호찌민시 한인 사회의 '원로' 그룹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일 이전 남베트남 사회와 연관이 있던 한국인들이 개혁개방 시기에 다시 베트남을 찾아 사업을 시작하며 한인 사회의 '원로' 그룹을 구성하였다. 이후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한국

대기업의 지사와 상사의 주재원을 비롯한 한국인 수가 늘게 되었다. 이들은 ‘원로’ 그룹과 구분되는 부류, 즉 제2세대에 속한다. 이렇게 남베트남의 한인 사회는 상이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닌 부류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반해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의 한인 사회는 개혁개방 이후에 한국 기업이 진출하며 이주한 한국인들로 주로 구성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국인들 가운데도 대기업 지사 및 상사의 주재원과 중소기업의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주 또는 여기에서 일하는 공장 매니저들은 사회경제적 기반이 달랐다. 베트남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 경제적 차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보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1990년대 중반까지, 이들 간의 구분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이들 간의 사회경제적 분화는 1995년경부터 시작된다. 대기업 직원이나 해외 공관원인 주재원들은 기업 또는 소속 기관의 지원으로 자녀들을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었으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공장 매니저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거주형태,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등 사회경제적 분화가 가시화되었다. 1997년부터 맞은 한국의 ‘IMF 사태’가 베트남 내 중소기업에 충격을 주었으나 대기업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한인 사회 내에 대기업 주재원과 여타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간의 구분을 두드러지게 하는 요인이었다. ‘IMF 사태’ 이후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인 소규모 투자자들이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제3세대 한인 사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2001년 베트남과 미국 간 양자무역협정(BTA) 발효 후 베트남 전국에 한국의 투자가 늘었고, 2000년대 후반부터 하노이 및 북부 지역에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한인 사회의 구성을 변화시켰다. 이 책의 저자는 베트남 한인들, 특히 초국적 삶을 사는 공장 매니저와 자영업자의 삶의 궤적을 제3장에서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흔히 ‘현채’라고 불리는 베트남 현지 채용 인력과 그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빈곤층’에 대한 저자의 관심과 조사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더불어 보통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 간에 맺어진 ‘한-베 가족’이 증가하는 현상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향후 베트남 한인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V. 한인 사회의 정치와 향후 과제

저자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한인회 구성의 역사는 지역별 차이를 나타내고 이에 따라 다른 내부 정치를 보여 준다. 남부 호찌민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윤택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인회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대기업 직원이나 공관원으로 구성된 주재원들은 자신들과 ‘한인회 사람들’을 구별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호찌민시 한인 사회에서의 ‘구별 짓기’는 한인회 내부의 갈등을 낳았다. 호찌민시 한인회는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채 교수가 이 갈등 상황을 분석하여 첫 논문을 출판한 때가 2005년이었는데, 2020년이 돼서야 이 갈등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하노이 한인회는 부유한 기업인이나 주재원이 주축을 이루고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만들어지고 운영되기에 이러한 ‘구별 짓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호찌민시의 ‘원로’ 그룹을 구성한 인사들처럼 베트남이 통일되기 전 전쟁 시기에 베트남과 연관을 맺은 한국인이 통일 이후 특히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이후에 하노이로 이주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베트남의 개방 초기에 하노이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의 다수는 한국 상사의 주재원들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차이가 남부와 북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성격상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다고 한다. 남부에는 의류, 봉제 등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하여 이에 종사하는 공장 매니저들이 다수 이주하였고,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초기부터 사업을 시작한 반면, 북부에는 대기업들이 진출하여 주재원들이 다수 이주하였다. 이들을 계층적으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거주지와 자녀의 학교였다. 대기업의 주재원들은 회사의 지원으로 월세 2-3천 달러짜리 아파트에 살고 자녀를 국제학교에 보내는 반면, 공장 매니저나 자영업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저자는 두 부류의 소비문화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하노이 거주 한인들은 하노이 한인 사회가 품위와 가치를 유지하나 호찌민시 거주 한인 사회는 주재원 말고도 ‘잡다한 부류’의 집합이어서 그러하지 못하다고 폄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하노이 한인 사회도 ‘IMF 사태’의 충격이 어느 정도 해소된 2003년경부터 개인사업자나 현지 구직자가 다수 유입되면서 변하였다. 이에 더하여 2007년, 2013년에 북부에 삼성

휴대폰 공장이 들어서며 하노이 한인 사회는 큰 변화를 겪는다. 이로써 ‘품위를 유지하고 사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구분 기준은 고급 아파트 월세의 지불 능력과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느냐 여부다. 베트남 한인 사회에서 ‘품위 있는’ 한인들은 ‘품위 없는’ ‘잡다한 부류의 사람들’을 무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한인 사회 내 구별 짓기 인식이 베트남인에 대한 한국인의 우월의식으로 전개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설사 베트남 내 한인 사회의 내부에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여도, 한국인들은 베트남인들을 대할 때 민족적 우위에 대한 확신하에 이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대해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이 무례하고 강압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저자의 지적은 과거 베트남의 한인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한국인들이 타당하지 않은 자만심을 나타내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저자는 이런 편향적 시각이 상대 국민과 문화에 대해 상호 ‘낙인찍기’로 이어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이런 일이 줄고 있어 다행이긴 하다.

이처럼 이 책의 저자는 베트남 한인 사회의 구성, 사회경제적 분화, 내부 정치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더불어 베트남 내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이들과 만나는 베트남인들에 대한 이성적 이해뿐만 아니라 감성적 연민도 자극한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베트남 연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애정과 연민을 듬뿍 보여 주었는데, 본 평자도 이 책을 읽는 내내 이에 공감하였다. 베트남을 연구하다 보면 고마운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고 여러모로 안타까운 일도 많이 겪게 된다. 과제는 두 나라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만났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베트남 내 한인 사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기에, 거의 같은 수로 구성된 한국 내 베트남인 사회의 연구도 제안해 볼 만하다. 누구든 『한국: 베트남인의 한국 정착과 초국적 삶의 정치』를 낸다면 이 책과 보기 좋은 한 쌍을 이룰 것이다.

참고문헌

- 곽성일·백용훈·이한우·Le Quoc Phuong·Vu Manh Loi·Nguyen Thi Thanh Huyen.
2021.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세
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기태. 2002. 『전환기의 베트남』, 조명문화사.
- 채수홍. 2005. “호치민 한인 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와 정체성의 정치학.” 『비교문화연
구』 11(2), 103-142.
- _____. 2014. “달팽이의 나선: 베트남 공장 노동자의 저항과 일상, 그리고 문화.” 전제
성·김형준·홍석준·황인원·채수홍·이상국. 『맨발의 학자들: 동남아 전문가 6인
의 도전과 열정의 현지조사』, 놀민.
- _____. 2020. “베트남의 산업화와 노동자의 저항.” 오명석·홍석준·채수홍·강윤희·이상
국·서보경·정범모·김형준. 『인류학자들, 동남아를 말하다』, 놀민.
- 최상수. 1966.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 한월협회, 개명문화사.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